



이슈리포트

2011년 4분기 수출기업체감지수와 수출기업 애로사항

이재우/산업투자조사실 선임연구원

I. 수출기업체감지수

1. 2011년 4분기 수출기업 평가지수
2. 2012년 1분기 수출기업 전망지수

II. 2011년 4분기 수출 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2. 수출기업 애로사항

요약

1.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97)보다 하락한 92을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수출물량 평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출업황이 전반적으로 전기 대비 악화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89)보다 상승한 94를 기록하여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전기(119)보다 하락한 111을 기록하여 원가부담이 완화된 반면,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가 97에서 99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유로존 사태 악화 및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전기전자, 조선업체, 석유화학,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업황평가가 크게 하락하며 전기(101)보다 6포인트 하락한 95 기록



2.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99로 전기(102)보다 하락
- 수출기업들의 업황 전망이 유럽재정 위기 해결 지연 및 경기회복세 둔화로 3분기 연속 하락하여, 수출경기의 악화 지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1로 3분기(100)보다 소폭 상승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01로서 전기(107)보다 하락하여, 기업들은 경기둔화 심화로 전기보다 수출물량 증가폭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수출기업 업황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수출업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임.
- 수출업황 악화기업은 중 84%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전기(68%)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업황 악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 가격경쟁력 하락은 24%로 전기(26%)에 비해 비중이 하락한 반면 업체 간 경쟁심화 등의 비중은 전기보다 다소 높아짐.
- 조선 및 기계류 업체의 경우 40% 이상이 업체 간 수출경쟁 심화를 업황 악화의 요인으로 답하고 있음.
-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환율 불안정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65%), 원자재 가격 상승(55%),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7%)를 꼽고 있음.
- 이외에도 인건비 상승이 20%, 인력부족이 11%를 각각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I

수출기업체감지수

1.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97)보다 하락한 92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수출물량 평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업황이 전기 대비 악화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89)보다 상승한 94를 기록,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전기(119)보다 하락한 111을 기록하여 원가부담이 완화된 반면, 수출단가(원화 기준) 평가지수가 97에서 99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됨.
 - 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이 전기 대비 상승함에 따라 수출단가(원화기준)는 소폭 상승하였고, 세계적 경기둔화 양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생산원가는 하락함.
- ※ 원/달러환율(기간 평균):
1,120(1/4분기) → 1,084(2/4분기) → 1,084(3/4분기) → 1,144(10~11월)
- ※ CRB 원자재 가격지수
331(8월) → 324(9월) → 311(10월) → 315(11월)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유로존 사태 악화 및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전기 전자, 조선업체, 석유화학, 섬유 산업 중심으로 업황평가가 크게 하락하며 전기(101)보다 6포인트 하락한 95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조선 및 플랜트 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전기(94)와 동일한 수준 유지, 4분기 연속 기준치 100 이하를 기록하여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1>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 평가지수	103	110	117	109	102	98	102	97	92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4	98	113	103	94	89	97	89	94
수출단가 평가지수	92	95	112	103	100	109	104	97	99
생산원가 평가지수	105	109	119	115	116	134	123	119	111
수출물량 평가지수	108	111	122	112	104	104	110	101	95
수출계약 평가지수	109	111	122	112	105	103	110	102	94
자금사정 평가지수	103	100	108	106	102	96	99	94	94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업황이 더 악화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평가지수는 각각 88, 93로 전기(대기업 96 중소기업 97) 대비 대기업의 하락 폭이 더 큼.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 93, 중소기업 94를 기록, 중소기업의 채산성 개선에 대한 평가가 더 양호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 100, 중소기업 93를 기록, 전기(대기업100, 중소기업 102)보다 수출물량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 94, 중소기업 95를 기록, 전기(대기업 97, 중소기업 93)대비 대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상황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조선(68) 및 석유화학(80) 등이 크게 악화

-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수출기업의 업황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음.
- 산업별 수출채산성 지수는 플랜트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기준치 이하를 기록함.
 - 특히, 석유화학, 조선, 섬유 산업 업체의 경우 70~80대를 기록하여 채산성 악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조선이 64를 기록하여 전기(83)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석유화학업체도 83을 기록하여 매우 부진한 상황임.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조선 산업 73, 플랜트 79를 기록, 해당 산업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에서 악화

- 수출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중국이 81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지역 역시 90대 수준으로 기준치(100)를 모두 하회함.

<표 2>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자금사정 평가지수	
		2011 3/4	2011 4/4	2011 3/4	2011 4/4	2011 3/4	2011 4/4	2011 3/4	2011 4/4
기업 별	대 기 업	96	88	82	93	100	100	97	94
	중 소 기 업	97	93	91	94	102	93	93	95
업 종 별	석 유 화 학	94	80	80	88	98	83	98	94
	철강 및 비철금속	84	90	78	98	88	105	97	97
	전 기 · 전 자	92	85	87	93	95	85	91	88
	기 계 류	105	97	96	94	115	97	97	97
	자동차(부품 포함)	105	103	93	101	106	107	96	97
	조 선	96	68	83	64	83	64	79	73
	섬 유	98	89	87	89	98	88	87	99
	플 랜 트	113	93	100	107	163	129	75	79
지 역 별	미 국	98	95	88	98	101	96	94	95
	중 국	90	81	81	85	92	88	93	92
	일 본	100	95	90	101	107	102	95	93
	유 로	113	93	103	91	116	92	98	93
	동 남 아	90	95	91	94	100	94	98	97
	중 남 미	94	92	106	100	100	104	94	104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중국이 85를 기록, 2분기 연속 80대를 기록하여 중국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일본 및 중남미 지역만 기준치 100을 상회함. 중국지역 수출업체의 경우 88를 기록하여 특히 수출물량의 위축이 심화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중남미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기 대비 하락함.

2.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99로 전기(102)보다 하락

- 수출기업들의 업황전망이 유럽재정 위기 해결 지연 및 세계적인 경기회복세 둔화로 3분기 연속 하락하여, 수출기업은 수출경기의 악화 지속을 우려하고 있음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1로 3분기(100)보다 소폭 상승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이 경기악화에 따른 경쟁심화 등 단가인하 압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전망지수	117	110	123	117	113	106	116	108	102	99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108	101	108	111	106	101	107	105	100	101
수출단가 전망지수	99	97	100	105	102	102	109	102	99	99
생산원가 전망지수	105	106	110	110	109	112	125	111	108	110
수출물량 전망지수	118	112	129	121	114	110	124	116	107	101
수출계약 전망지수	118	111	129	121	113	109	123	116	106	102
자금사정 전망지수	111	103	111	110	106	101	106	106	100	98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01로서 전기(107)보다 하락하여, 기업들은 경기둔화 심화로 전기보다 수출물량 증가 폭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98로서 전기(100)보다 하락하여, 자금사정 악화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100, 99를 기록하여 전기(대기업 100, 중소기업 100) 보다 하락함.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대기업이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은 소폭 하락하여 대기업이 환율 상승 등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물량 전망지수 역시 중소기업이 4~7포인트 하락하여 수출경기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 폭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대기업이 100 중소기업이 97을 기록, 전기(대기업 100, 중소기업 100)보다 중소기업의 자금악화 우려가 큼.
- 산업별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조선, 전기·전자 및 철강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됨.
- 플랜트, 섬유 산업 등은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전기보다 지수가 하락하였음.
 - － 석유화학과 기계류 업체는 전기보다 지수가 상승하여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산업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기계류 및 석유화학, 섬유산업이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 조선 산업은 82를 기록하여 2분기 연속 80대 수준에 머무름.
 - 산업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기계류 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기보다 하락함.
 - － 특히,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업의 경우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전기 대비 수출물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산업이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전기 대비 자금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수출 지역별로는 유로지역, 일본, 중국, 동남아에 대한 업황전망이 전기보다 악화됨.

- 미국, 중남미 지역에 대한 업황전망 지수가 전기보다 상승하여 해당지역 경기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수출 지역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중남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해당지역에서 수출증가율 하락을 우려하고 있음.

<표 4>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2년 1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구 분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수출물량 전망지수		자금사정 전망지수	
		2011 4/4	2012 1/4	2011 4/4	2012 1/4	2011 4/4	2012 1/4	2011 4/4	2012 1/4
규모별	대 기 업	103	100	100	107	110	106	100	100
	중 소 기 업	103	99	100	99	106	99	100	97
업 종 별	석 유 화 학	95	103	95	104	105	99	95	100
	철강및비철금속	102	97	101	99	106	103	103	101
	전 기 · 전 자	97	95	93	97	103	97	96	96
	기 계 류	102	103	96	107	103	105	97	100
	자동차(부품 포함)	104	99	105	99	115	94	102	98
	조 선	96	82	88	82	100	95	96	100
	섬 유	106	104	109	104	106	102	102	99
	플 랜 트	138	114	113	100	113	129	125	107
지 역 별	미 국	100	103	98	103	108	101	98	103
	중 국	101	97	99	98	105	96	100	95
	일 본	100	95	98	94	102	93	96	88
	유 로	109	100	106	105	113	106	106	102
	동 남 아	100	92	98	97	106	99	101	99
	중 남 미	100	112	106	127	106	127	106	112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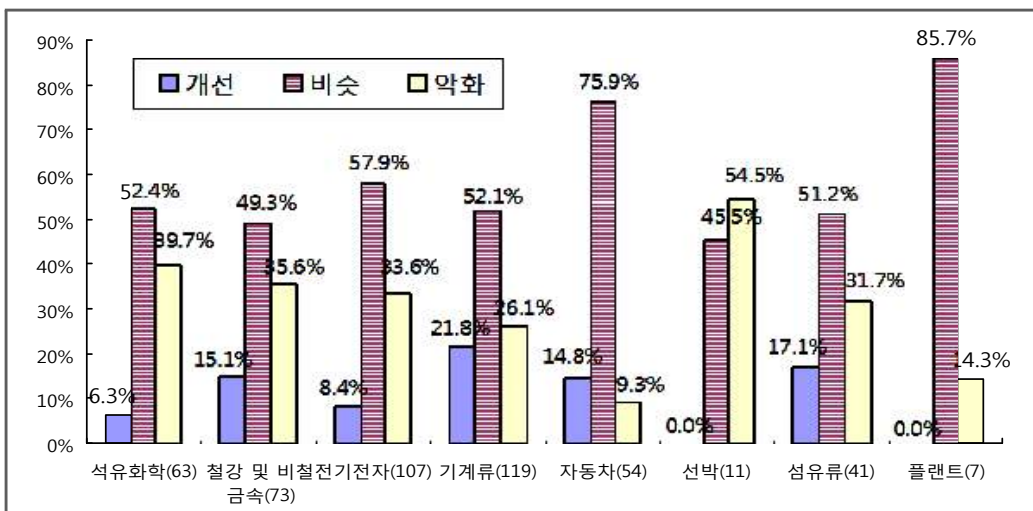
2011년 4분기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2011년 4분기 중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이 개선된 기업보다 다수

-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5.1%, 악화되었다는 기업은 29.3%로 나타남.
 - － 전기(개선 21.9%, 악화 25.9%)보다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 55.4%는 수출업황이 2011년 3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함.
- 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중 33%의 업체가 전기 대비 악화되었으며 중소기업은 29%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분류별로는 전 업종에서 업황이 악화된 기업 비중이 개선된 기업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의 경우 50% 이상의 기업의 업황이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산업별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 업황이 개선된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경기개선을 가장 큰 개선요인으로 응답함

○ 수출업황 개선기업 중 59%는 업황개선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로 답하고 있으나, 전기(65%)보다 낮아져 전반적으로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이 크지 않았음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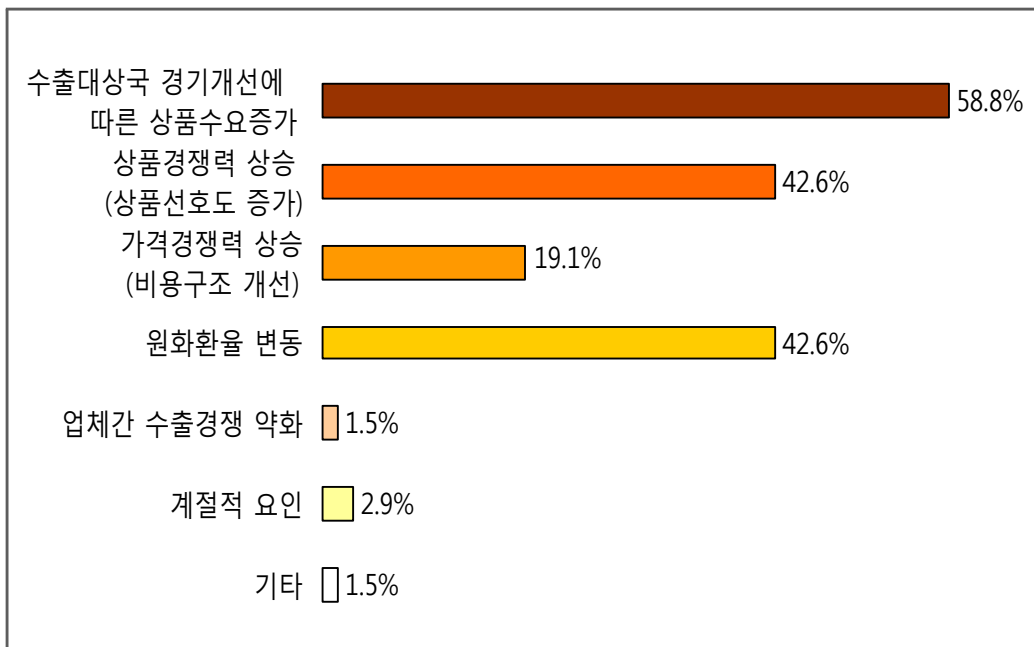
－ 다음으로 상품경쟁력 상승과 환율변동에 따른 업황개선이 각각 43%를 차지함.

○ 업황개선의 요인으로 상품경쟁력 상승을 답한 비중은 석유화학및 플랜트 산업이 각각 39%, 50%를 기록함.

－ 자동차업체의 경우 29%의 기업이 환율변동 및 가격경쟁력 상승을 업황개선의 요인으로 응답해 최근 환율상승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주: 업황개선 기업 수는 68개임.



<표 5>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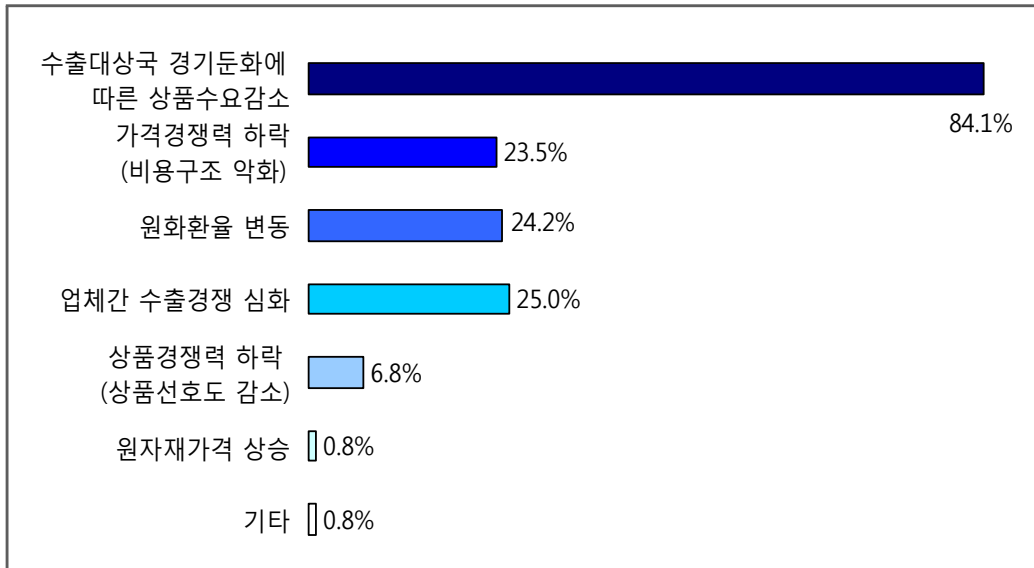
구 분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 경쟁 약화	원화 환율 변동	계절적 요인
규모별	대 기 업	23.3%	36.7%	53.3%	6.7%	20.0%	6.7%
	중 소 기 업	18.8%	14.5%	69.6%	5.8%	10.1%	10.1%
업 종 별	석 유 화 학	38.5%	7.7%	76.9%	0.0%	7.7%	15.4%
	철강 및 비철금속	20.0%	40.0%	60.0%	10.0%	10.0%	10.0%
	전 기 · 전 자	18.2%	13.6%	63.6%	4.5%	9.1%	13.6%
	기 계 류	10.7%	14.3%	64.3%	3.6%	14.3%	17.9%
	자동차(부품 포함)	11.8%	29.4%	70.6%	5.9%	29.4%	0.0%
	조 선	0.0%	0.0%	100.0%	0.0%	0.0%	0.0%
	섬 유	28.6%	28.6%	50.0%	14.3%	7.1%	14.3%
	플 랜 트	50.0%	50.0%	50.0%	0.0%	0.0%	0.0%

□ 수출업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임.

- 수출업황 악화기업 중 84%가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전기(68%)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업황 악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임.
 - 가격경쟁력 하락은 24%로 전기(26%)에 비해 비중이 하락한 반면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의 비중은 전기보다 다소 높아짐.
- 조선 및 기계류 업체의 경우 40% 이상이 업체 간 수출경쟁 심화가 업황악화의 요인으로 응답하고 있음.



<그림 3>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주: 업황악화 기업 수는 132개임.

<표 6>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지역별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간 수출 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규모 별	대 기 업	2.9%	29.4%	76.5%	26.5%	20.6%	0.0%
	중 소 기 업	4.8%	24.1%	63.9%	19.3%	36.1%	2.4%
업 종 별	석 유 화 학	0.0%	31.3%	56.3%	31.3%	37.5%	0.0%
	철강 및 비철금속	4.2%	37.5%	79.2%	25.0%	16.7%	0.0%
	전 기 · 전 자	8.3%	25.0%	75.0%	8.3%	30.6%	0.0%
	기 계 류	0.0%	10.0%	75.0%	40.0%	35.0%	0.0%
	자동차(부품 포함)	0.0%	40.0%	40.0%	20.0%	40.0%	0.0%
	조 선	0.0%	50.0%	50.0%	50.0%	0.0%	0.0%
	섬 유	7.1%	14.3%	64.3%	7.1%	42.9%	7.1%
	플 랜 트	0.0%	100.0%	0.0%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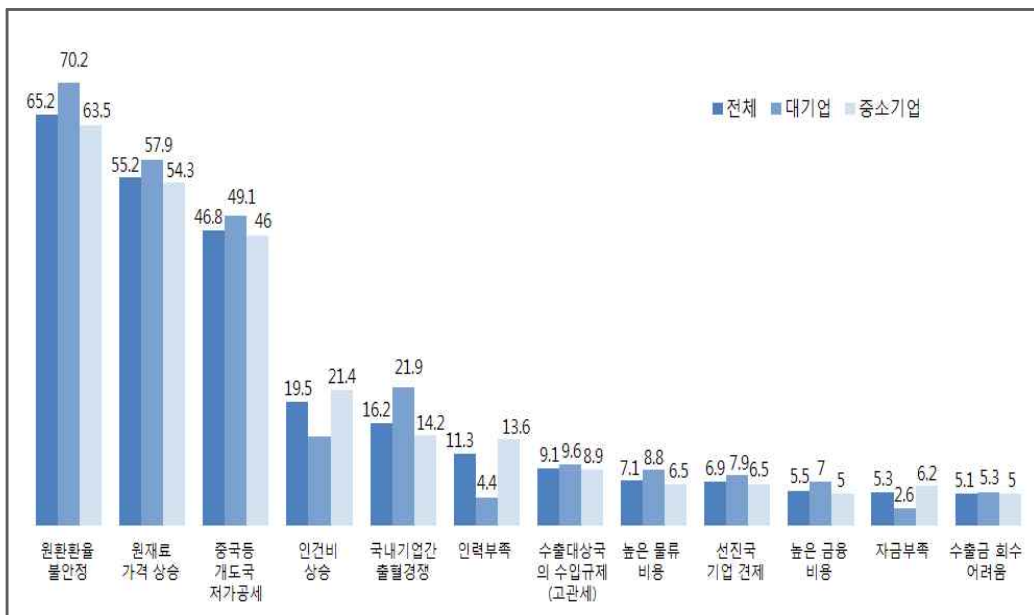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불안정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65%), 원자재 가격 상승(55%),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47%)를 꼽고 있음.
- 이외에도 인건비 상승이 20%, 인력부족이 11%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조선 산업의 경우 73%의 기업이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의 경우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우려가 다른 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기계 산업 및 철강 산업의 경우 국내기업 간 경쟁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및 섬유류 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2011년 4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표 7> 2011년 4분기 산업별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구 분	석유 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류	플랜트
원화환율 불안정	73.0%	67.1%	60.7%	67.2%	66.7%	36.4%	65.9%	57.1%
원재료 가격 상승	54.0%	53.4%	50.5%	56.3%	55.6%	63.6%	58.5%	57.1%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47.6%	60.3%	44.9%	50.4%	22.2%	72.7%	46.3%	42.9%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15.9%	19.2%	16.8%	20.2%	7.4%	9.1%	17.1%	42.9%
인건비 상승	17.5%	6.8%	20.6%	15.1%	35.2%	18.2%	24.4%	14.3%
선진국기업의 견제	7.9%	6.8%	9.3%	7.6%	9.3%	0.0%	2.4%	0.0%
높은 물류비용	4.8%	5.5%	6.5%	7.6%	7.4%	9.1%	12.2%	0.0%
높은 금융비용	1.6%	9.6%	5.6%	4.2%	11.1%	9.1%	9.8%	0.0%
신규대체상품 출현	3.2%	1.4%	11.2%	3.4%	1.9%	0.0%	2.4%	0.0%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고관세)	12.7%	13.7%	7.5%	10.1%	5.6%	9.1%	7.3%	0.0%
자금부족	3.2%	0.0%	6.5%	4.2%	5.6%	9.1%	7.3%	28.6%
인력부족	7.9%	2.7%	7.5%	15.1%	14.8%	0.0%	12.2%	14.3%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7.9%	6.8%	4.7%	6.7%	5.6%	0.0%	2.4%	0.0%